
베트남전쟁 경험의 기억과 그 '의미'- 참전 간호장교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김수자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베트남전쟁 발발과 한국의 참전 '명분'
- III. 한국 간호장교의 탄생과 베트남전쟁 참전
- IV. 참전 간호장교의 활동과 전쟁 '이후'의 인식
- V. 맺음말

국문초록

1964년 비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개입하였다. 1973년 종전까지 베트남전쟁을 경험한 군인은 총 32만여 명이었으며 이들 중 559명이 간호장교다. 베트남전쟁은 '최초 해외 파병',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원조'라는 인식이 초기에 강하였다. 그러나 점차 '청부 전쟁', '흙탕물 속의 전쟁', '명분 없는 전쟁' 등 부정적 의미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쟁에 참전했던 간호장교들은 귀국 후 초기에는 자신들의 참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6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그들은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해 자신들의 역할을 '경제 발전'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등 한국 경제 발전의 동력이 자신들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제어 : 베트남전쟁, 간호장교, 구술, 기억, 경험, 의미, 애국심

I. 머리말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시기는 1964년 9월 비전투부대인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의 파병에서부터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철수한 1973년 3월까지 10년이었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참전 초기에는 군 파견 규모에 비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졌다. 이것은 당대 국내에서 전개된 한일협정체결과 관련한 이슈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이 한국 밖의 ‘남의 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대외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반전’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었다.¹⁾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멀리 이국의 전쟁이었지만 군인, 간호장교, 기술자, 민간인 등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준 그리고 그 영향은 현재에도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이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 중에는 간호장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참전 간호장교의 수는 1964년 6명에서부터 철수 시점인 1973년의 4명을 포함하여 총 559명이었다. 이 규모는 당대 한국 간호장교의 수와 맞먹는 것이었다.²⁾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간호장교는 대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전 간호장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현재 간호장교가 참전한 베트남전쟁에 관한 연구는 한국이 베트남전쟁에서 거둔 전투 성과, 한미관계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베트남전쟁 파병 경위 및 성격과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참전 군인들의 구술채록 작업이 진행되면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론에 기초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³⁾

1) 한홍구 (2003),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의 길」,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pp. 287~310.

2) 1966년 기준으로 간호장교 재적인원은 571명이었다. 1963년 이후 간호후보생 및 위탁생 과정을 통해 간호장교 충원이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 중반 간호사의 독일 파견으로 간호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육군본부 (2009), 『대한민국간호병과 60년사: 1948-2008』, pp. 79~80.

3) 윤충로 (2008),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

그러나 베트남전쟁 참전 간호장교에 관한 연구는 구술을 통해 경험을 살펴본 것이 전부이다.⁴⁾ 기존 연구는 간호장교들의 구술을 수집하여 그들의 경험을 고찰하고 현장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참전 간호장교의 간호역할 수행 즉 '간호의 본질' 탐색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적 고찰 및 생애사적 측면에서 간호장교의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과 그들의 인식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유,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명분 그리고 한국에서 간호장교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10명의 간호장교의 구술 자료와 당대 발간된 신문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간호장교들의 베트남전쟁 경험 및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II. 베트남전쟁 발발과 한국의 참전 '명분'

베트남전쟁은 1960년~1975년까지 전개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미국 사이의 전쟁을 일컫는다. 베트남전쟁은 남베트남 정부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사이의 내전(內戰)으로 시작되었다.⁶⁾ 그러나 1964년 8월 미국

산,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pp. 283~312.; 정용욱, 김도민, 류기현(2020), 『구술로 본 한국 현대사와 군』, 선인; 김수자 (2024), 「베트남전쟁 참전 간호장교의 베트남전에 대한 인식과 기억: 베트남전쟁 참전 간호장교의 구술을 중심으로」, 『송실사학』 52집, pp. 363~383.

4) 지연옥 (2005),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군 간호장교」, 『군진간호연구』, pp. 39~59.; 한정진 (2016), 『여성간호장교의 베트남전쟁 참전 체험』, 이대 박사학위논문.

5) 본 연구에 활용한 10명의 간호장교 구술 자료는 2023년 6월~8월 진행한 '2023년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자료 수집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을 활용하였다. 구술자 10인의 참전 시기 및 주요 활동에 대한 내용은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생애사 구술은 각 인물들이 한 사건에 대해 겪은 다양한 경험과 공식 역사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개인의 역사를 포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귀옥 (2008), 「한국 구술사 연구 현황, 쟁점과 과제」,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pp. 28~29.

6) 베트남전쟁 참전 당시 한국인들은 남베트남을 월남이라 지칭하였으며, 남베트남에 저항하는 반군 단체인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전투원을 베트콩이라 불렀다.

이 통킹만 사건을 이유로 북베트남을 폭격하게 되면서 전쟁은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⁷⁾

미국은 1964년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More Flag Campaign을 폈다. 당시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미국 참전을 요청한 27개국 중 7개국만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타이완), 필리핀,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7개국이다. 이 국가들이 참전하게 되면서 베트남전쟁은 국제전이 되었다.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한 한국 정부는 파병의 이점으로 국내 단결과 반공의식의 강화 그리고 아시아 반공국가의 결속을 이야기하였다.⁸⁾ 그리고 미국에게 파병의 대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요청하였다. 첫째는 한국군의 감축 중지 및 군의 현대화, 둘째는 한국에 대한 안보 약속, 셋째는 경제적 이익 보장이었다.⁹⁾ 경제적 이익의 핵심은 미국의 대한경제 지원,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보장 등이었다.

미국은 파병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 공백의 방지를 위한 군사원조 그리고 파병에 따른 차관, 기술원조 등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였다.¹⁰⁾ 실제로 한국 정부는 두 가지 부문에서 전쟁특수를 미국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첫째는 주월한국군과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AID)가 베트남에서 소비하는 물자 등을 한국에서 조달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주월한국군이 사용하는 군복을 비롯한 모든 복장과 전투 관련한 물품과 식량 등을 한국기업이 제조, 수출하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등 군납 물품의 수출과 무역 이

7) 통킹만 사건은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연안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과 미해군 양국 함대가 교전한 사건이다.

8) 「월남파병 문제에서 고려되어야할 문제점」(1964.1.6.), 대한민국대통령실 보고서 번호 65-7, 국가기록원 소장.

9) 박태균 (2006),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과정-미국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74, p. 163.

10) 김수향 (2020), 「한국군 구슬을 통해 본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활동」, 『구슬로 본 한국현대사와 군』, 선인, p. 239.

익이라는 전쟁특수를 얻고자 하였다. 한국은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 제공 및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군수용 물자를 국내에서 생산 조달하는 등 베트남에서의 경제활동을 보증받았다.¹¹⁾

1964년 태권도교관단과 이동외과병원 의무단이 파병되었다. 1965년에도 비전투 병력인 공병대대인 비둘기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공병대대는 폭파, 축성, 교량 및 학교 건설 등을 담당하였다. 비둘기부대 파병에는 대대적인 환송식 행사가 있었다. '평화의 사도'로 표현된 비둘기부대의 파병 이후 1965년 9월 '평화의 십자군'이라 불린 전투부대인 청룡부대가 파병되었다.¹²⁾ 청룡부대를 시작으로 맹호, 백마, 백호 부대 외에도 다양한 부대가 참전하며 한국은 베트남전에 깊게 관여한 국가가 되었다.

1964년~65년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국내 반대운동은 미약했다. 야당의 파병 반대론도 있었으나 이 또한 크지 않았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 명분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5년 국회에서 베트남 파병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파병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월남파병의 명분을 제기하였다.

자유 월남이 공산화하는 경우 자유세계의 대공전선에 차질이 [...] 월남을 출로로 하는 공산세력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태평양 지역의 자유국가들에 대해서 노골적이며 급진적인 도발 행위로 나올 것인데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미리 일어나서 막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¹³⁾

박정희 정권의 파병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6. 25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우방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6. 25전쟁 당시 자유세계 우방국들의 지원으로 공산군을 물리쳤듯이 우방인 베트남이 공산 침략에 희생되는 것을 그냥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

11)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2024년 8월 20일 접속).

12) 「파월 청룡부대 결단」, 『동아일보』, 1965. 9. 20.

13) 「월남파병 관련 대통령 담화문」, 『박정희 대통령 선집』, 4, p.239.

다. 두 번째는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아시아 인접 국가들도 공산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아시아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함이라는 것이었다.¹⁴⁾ 이러한 논리는 당시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우리는 이역만리 월남 땅에 수많은 군대와 기술자를 보내고 있는 동기와 목적을 이 기회에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우리의 파병은 순수한 동기와 숭고한 목적에서 나온 희생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우리 한국인이 거기에 간 것은 순전히 우리의 쓰라린 체험에서 배운 대공(對共)의식 때문이며 우리가 공산주의 침략하에 국운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민주 우방들의 피를 나눈 지원으로 적을 패주시키고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다는 교훈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 침략하의 월남 사람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의 체험에 비추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자체의 힘만으로 침략자를 무찌르지 못해 우방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착잡한 심정으로 월남사람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렇듯 동병(同病)을 서로 서러워하는 입장에서 월남정부의 군대파견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였고 우리로서는 힘에 겨운 대군을 보내어 남베트남 전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¹⁵⁾

세 번째는 미국이 요청하는 파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이 베트남으로 재배치될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침략 위협이 높아질 것이라는 미군 철수론이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박정희 정권은 야당을 압박하며 여론을 만들기도 하였다. 1965년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되자 비둘기부대의 파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1965년 2월 9일 ‘베트남 파병 환송국민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 박정희대통령은 파병 군인들을 ‘자유의 십자군’이라고 격려하였다.¹⁶⁾ 맹호, 백호 등의 전투부대들이 베트남으로 향하였다.

14) 한홍구 (2003), pp. 292~293.

15) 「한월감정」, 『동아일보』, 1967. 12. 4.

16) 「박대통령치사 요지」, 『경향신문』, 1965. 2. 9.

전쟁이 전개됨에 따라 박정희 정권의 파병 명분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66년 국회에서 4차 파병안이 처리될 당시 외무장관 이동원은 “월남은 전쟁터이지만 한편으로 시장”이라며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을 강조한 것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966년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서 받은 전투 수당은 다른 나라 군대의 1/4 정도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 등도 있었으나 사병들이 받은 50달러는 한국 경제 상황에서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 참전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차관, 무역 특혜 등 특수를 얻어 10억 달러 내외의 외화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전쟁 초기 언론들은 한국의 베트남전쟁 파병이 ‘성공적’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베트남전 참전 의미를 ‘베트남 통신’, ‘월남 소식’ 등의 코너를 만들어 독자투고 형식으로 일반인들의 글을 받아 실었다. 주된 내용은 ‘한국민족이 자율적으로 타민족을 돕기 위해 외국으로 군대를 파견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한국 민족의 긍지를 세계에 떨쳐달라’, ‘5천년 한국의 역사상 첫 해외 파병으로서 국위 선양의 좋은 기회’, ‘베트남은 자유국가로 한 가족이며, 베트남을 공산당과 싸워 이겨달라’, ‘남의 나라의 도움만 받다가 이제 남을 도와주러 간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 등의 내용이 그것이었다.¹⁷⁾ 그러나 베트남과 관련 한미관계 및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이익이 강조되었지만 베트남은 전쟁터였다.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였다.

전투부대의 참전이 논의되면서 베트남 파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다. 1965년 8월 23일 전남대학생 1,000명은 “우리는 월남사태에 양키들의 총알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이 구호가 반미, 반국가적 경향을 띠며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반공법 및 내란 선동죄로 구속하였다.¹⁸⁾

17) 「민족적 긍지 보이라」, 『조선일보』, 1965. 10. 12.

18) 「학생 데모 구호에 반국가적 경향 내란죄 적용」, 『동아일보』, 1965. 8. 25.

이와 같이 베트남전쟁에 비전투부대 및 전투부대 파견을 결정하자 국내에서도 베트남 파병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베트남전쟁의 현장에 대한 보도는 전장에서의 ‘민간외교’와 같은 대민 진료 등 간호장교의 희생적 활동, 헌신적 태도 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Ⅲ. 한국 간호장교의 탄생과 베트남전쟁 참전

1950~60년대까지 여성이 군인이나 간호장교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¹⁹⁾ 이러한 분위기는 1960년대에도 이어졌다. 구술자들의 구술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난다.

일반인의 간호학교에 대한 인식은 겹겹 눈을 하고 바라보는 등 간호장교에 대해 썩 좋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구술자 1의 구술 내용 중]

육군의 간호장교는 1948년 5월 최초 의무부대인 제1 의무대대가 영등포에 창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군 병원인 제1 육군병원도 영등포대방동에 설립되면서 병실 및 물품 관리 등에 전문관리를 위한 간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간호후보생 제도가 1948년 8월 실시되어 31명의 자격이 있는 민간 간호사들이 입대하였다.²⁰⁾ 군에 간호병과가 설립된 것은 1948년 8월 26일이다. 당시 민간병원의 간호사들을 간호장교로 임관시키는 간호장교후보생 선발제도 도입으로 초기에는 이들이 간호장교로 임관되었다. 이들이 대한민국 간호장교 후보생 제1기이다.²¹⁾

19) 간호장교 2기 6.25 전쟁 참전 박옥선의 구술, 전쟁기념사업회, (<https://archives.warmemo.or.kr/> 2024년 8월 20일 접속).

20) 육군본부 (1998), 『간호병과 50년사』, p. 19.

21) 「간호병과 자랑스런 53년 발자취」, 『간호사신문』, 2001. 11. 15.

임관된 간호장교들의 첫 중요 임무는 1948년 10월 발발한 여순사건으로 부상당한 부상자들 간호였다.²²⁾ 제2기 간호장교는 1949년 2월 임관되어 여순사건과 지리산 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군 간호 활동을 펼쳤다. 당시 간호장교는 육군본부 의무감실 내 의무과 산하 간호계가 만들어지면서 간호업무를 전담하였다.²³⁾ 간호장교들은 후보생 시절을 거쳐 소위로 임관되었으며, 중앙 및 각 지역의 육군병원에 배속되었다.²⁴⁾ 1949년에는 해군본부에서 해군 간호장교단을 창설하고 해군 진해병원에서 간호 활동을 펼쳤다.²⁵⁾

당시 간호장교 후보생의 충원은 필요할 때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모 자격을 보면 “연령은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에 한하였으며, 여자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대한민국정부 간호부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미혼여성, 시험과목은 신체검사, 구두시험, 해부학, 간호학, 생리학을 포함한 필기시험 그리고 임상시험”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²⁶⁾ 1955년 간호장교는 3월경에 전국 9개소의 간호고등기술학교에서 간호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위탁교육을 받아 충원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간호장교는 필요할 때 모집공고를 내어 충원되고 있었다.²⁷⁾ 간호후보생들은 기본적으로 간호면허증 소유자로 간호사 경력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호장교는 6.25전쟁 이후 증가하였다. 6.25전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전상자 후송 및 치료를 위한 의무 장병뿐 아니라 인원과 장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빈번한 전투와 전상자 발생으로 부대가 창설되고 인력 보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전쟁 직후 120

22) 이복남 (2020), 『아이고매 쓰지마요 우리 남편이라우: 여순반란 사건에 종군한 어느 간호장교의 수기』, 신아출판사, p. 65.

23) 민경자 (2008), 「여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제68호, p. 330.

24) 「여장교 수료식」, 『조선일보』, 1949. 5. 26.

25) 「씩씩한 여성들 해군장교 취임」, 『동아일보』, 1949. 4. 14.

26) 「군의위생간호장교 후보생 채용공고」, 『조선일보』, 1949. 10. 18.

27) 「간호장교와 여군모집은」, 『동아일보』, 1955. 8. 6.; 「간호장교가 되고 싶은데」, 『조선일보』, 1956. 1. 26.

명이었던 간호장교는 1950년 219명, 1951년 46명, 1953년 324명으로 총 588명이 보충되었다.²⁸⁾ 전쟁 중에는 민간 간호사들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 경우 간호장교로 입대하고, 간호학생인 경우에는 1949년 창설된 국군의무학교 간호사관 생도과정에 입교하기도 하였다.²⁹⁾

간호사관 후보생 제도를 통해 간호병과는 인력을 확보하였으나, 6.25 전쟁 동안은 이 제도만으로는 충원이 어려웠다. 이에 국군의무학교 내에 간호사관 생도 2년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체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1951년 1월 6일에는 여자의용군 훈련소에서 111명을 모집하여 국군의무학교 간호사관 생도를 제1기생으로 입교시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소위로 임관시켰다. 그리고 이들이 각 육군병원에 배속되어 간호업무를 담당하였다.³⁰⁾ 이외에도 1950년대는 간호장교 지원 방법과 선발 방법이 간소화되었다. 이들의 연령은 만 20세 이상~4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도립병원 간호사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특혜를 주어 현지 임관시키기도 하였다.³¹⁾

구술 대상자들은 대체로 1960년 중후반에 간호장교가 되었다. 이들은 당시 육군 또는 해군에서 간호장교 후보생들을 모집하러 여자 중·고등학교 등을 방문했을 때 지원하여 후보생이 되었다. 1960년대에도 간호장교 모집의 주 방법은 학교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구술 대상자들의 간호장교 지원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컸다. 상급학교 진학이 가정 형편으로 어려워지자 간호장교를 지원하여 배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예가 많았다.

28) 육군본부 (1998), 『간호병과 50년사』, p. 46.

29) 육군본부 (1998), 『간호병과 50년사』, p. 60.

30) 이 제도는 1957년 10기생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휴전과 함께 지원자가 격감하였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육군본부 (1998) 『간호병과 50년사』, p. 64.

31) 민경자 (2008), p. 338.

학비가 제일 문제였죠. 공부도 하고 싶었고, 다른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를 가는데 집에서 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간호학교가 창설되었어요. 위탁생으로. [구술자 3의 구술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서 장학생 모집한다. 신문에서 보고 내가 학교에 물어봤더니 언제 있다고 그래 갖고. 대구 가서 2개월인지 3개월 군사 훈련받고, 임관해 가지고. [구술자 6의 구술 중]

1960년대 간호장교는 후보생으로 지원하여 군의 병원양성소 등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배출되었다. 그리고 을종위탁생제도 등을 각 군대가 운영하면서 간호장교를 양성하기도 하였다.³²⁾ 1950년대에는 간호장교의 충원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시기에 따라 변화가 컸다. 6.25전쟁으로 인한 인력 보충이 긴급할 때는 면허간호사 현지임관제를 실시하여 수가 늘어났으나 전쟁 종료 및 민간 간호사의 저조와 간호사관 생도 지원 저조 등으로 현지임관제 및 생도과정제는 폐지되는 등 부침이 있었다. 간호장교 양성의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실시된 것은 베트남전쟁 시기였다. 1967년 3년제인 육군간호학교가 설치되면서 간호장교의 충원은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파병을 시작한 1964년, 간호장교도 비전투부대로 제1차로 베트남에 갔다. 1964년 간호장교의 베트남 전 참전이 결정되었을 당시 병과에서는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명하여 대상자들 하달하였다. 초기 참전 선발기준은 미혼자로서 야전병원 근무 경험이 있으며 영어 회화 가능한 중위 이상으로 정하였다.³³⁾

32) 육군본부 (2009), 『대한민국 간호병과 60년사: 1948-2008』, pp. 79~80.

33) 육군본부 (1998), 『간호병과 50년사』, p. 148.

〈표 1〉 베트남전쟁 참전 간호장교 연도별 총계

연도	인원수	연도	인원수
1964	*6	1965	53
1966	64	1967	71
1968	87	1969	67
1970	72	1971	83
1972	52	1973	4
총계	559		

* 참고: 최용호 (2007),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에는 1964년 참전 간호장교 4명으로 표기 되어있으나 이것은 오토표기다.

간호장교의 베트남전쟁 파병 기간은 1년이였다. 그리고 파견 인원이 교체되면서 선발기준에 맞는 장교들의 수가 적어지면서 중위 및 소위도 파견되었다. 선발된 장교들은 베트남전쟁 참전 전 57후송 병원에서 다시 한번 15일 동안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춘천의 제9 보충대에서 1개월~2개월 동안 교육과 적응 훈련을 받았다.³⁴⁾ 베트남전에 파견된 초기 간호장교 6명에 대해 육군본부가 펴낸 『간호병과 50년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월남에 최초로 파견된 한국군 중 가장 눈길을 모은 것은 6명의 간호장교였다. 미 해군 함정 속에서 다른 한국군 장병들은 우리 간호장교들을 보고 ‘여자도 전장으로 가는데 남자인 내가’하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간호장교는 출발부터 심리적 간호를 수행하였다.³⁵⁾

베트남전쟁 파병 초기부터 간호장교는 ‘여자도 하는데 남자는’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심리전 활용 대상이었다. 참전한 간호장교의 베트남에서의 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상의 환자들이

34) 육군본부 (1998), 『간호병과 50년사』, p. 148.

35) 육군본부 (1998), 『간호병과 50년사』, pp. 148~149.

많으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전투가 있는 날이면 헬리콥터가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날아와 많은 전상자를 후송하였고, 간호장교들은 환자 간호에 밤을 세웠다. 그리고 베트남의 임산부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 치료를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는 대민진료도 담당하였다. 전쟁 중 간호장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전상자들 치료에 대한 헌신적 태도, 자신보다 환자를 더 생각하는 희생정신 등이었다. 이러한 행동을 언론은 '나이팅게일' 정신이라며 부각시켰다.³⁶⁾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쟁 참전 명분의 하나로 대민관계를 중시하고 양민을 보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백의 천사'로 활약한 간호장교들의 간호, 진료 활동 등을 집중 조명하였다.

베트남전쟁에서의 대민활동의 핵심은 베트남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이었다. 구호사업, 진료 활동, 학교 및 교량 건설지원, 자조사업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참전 군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민사작전에서 주력 사업은 의료지원, 구호 활동, 건설지원 등이었다.³⁷⁾ 1966~1968년 청룡부대 부대대장으로 여단 봉사 참모를 지낸 차수정은 한국군의 구호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대민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작전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민간인들 부락 이런 데를, 군청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 부락에 가서는 주로 식량, 쌀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는 데, 월남 정부로부터 쌀도 지원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식량을 절약을 해서 일부 대민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쌀을 가서 노나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저 대민지원하는 사진도 하나 봤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편에 들게끔 하고, 당신네 베트콩이 여기 뭐 있으면은 우리한테 알려 달라,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대민지원 사업이고 [...] ³⁸⁾

36) 「간호장교 미거」, 『동아일보』, 1965. 8. 9.

37) 류기현 (2020), 「주월한국군의 대민관계」, 『구술로 본 한국현대사와 군』, 선인, p. 289.

간호장교가 펼친 대표적인 대민지원 사업은 의료지원이었다. 간호장교들은 한국군 또는 미군이 설립한 야전병원에서 활동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군 부상자들뿐 아니라 현지인에 대한 치료도 병행되었다. 봉따우(Vung Tau) 제1야전병원에서 간호장교로 활동한 안상정은 대민진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 주로 갔을 때는 대민진료가 먼저 시작됐어요. 이제 전상환자는 뭐 전쟁 일어났을 때 이제 후송 오면은 받았지만은, 대민진료가 굉장히 많이들 와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도 또 어떻게 할까 했는데, 뭐 받아보니까 상처도 쉽게 낫고, 또 친밀감도 있고, 신뢰도 가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를 좋아해요. 우리를 이제 의사를 박시라 그러거든? 파이한 박시, 파이한, 캄언. 캄언은 고맙단 말이고.³⁹⁾

안상정은 1964년 제1차로 베트남에 참전한 간호장교였다. 의료활동은 야전병원뿐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행해졌다.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서는 고정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전한 군의관이나 위생병, 간호장교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민간인들의 외상에 소독제를 발라주거나 언청이 수술을 해주는 등의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대민지원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은 국내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적’을 상대로 하는 전쟁만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나아가 생명을 구해주는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함이었고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8) 차수정의 2차 구술, 2013. 10. 30, 류기현 (2020), p. 290 재인용.

39) 안상정의 1차 구술, 2014. 10. 12. 류기현 (2020), p. 291 재인용.

IV. 참전 간호장교의 활동과 전쟁 '이후'의 인식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들은 대체로 복무 기간이 1년이었다. 1년 복무 후 귀국 길에 올랐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연장하여 2년 정도 더 있기도 하였다.⁴⁰⁾

베트남에서의 간호장교들의 활동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형성 및 인류애를 선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사례였다. '백의의 천사'라는 칭호와 적군인 환자들도 감화하여 퇴원 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는 신문 기사는 베트남전쟁에서의 대한민국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활용되었다. 초기에 참전한 간호장교 손영숙의 회고에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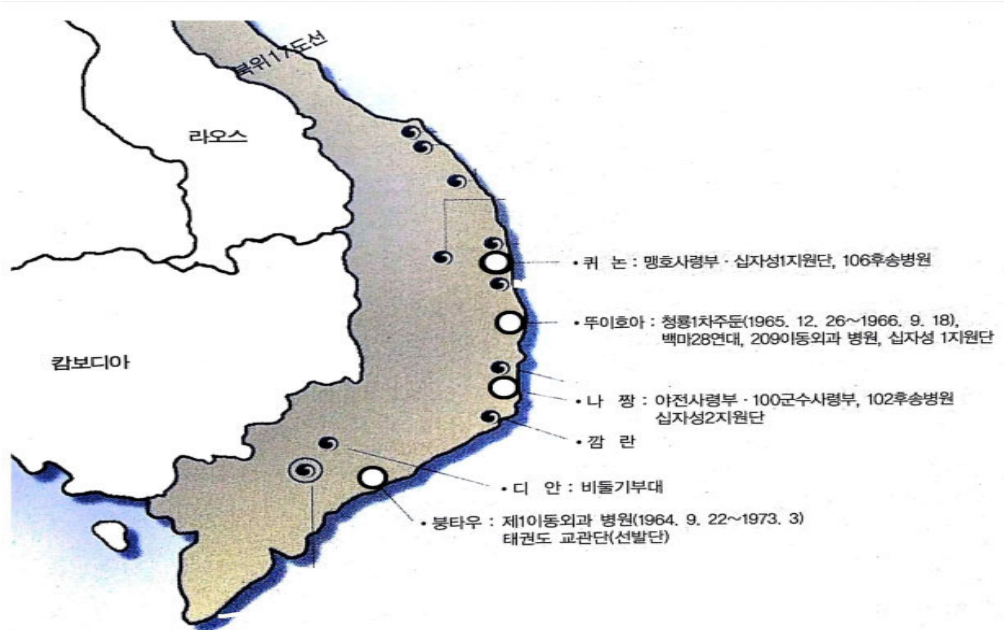
우리 간호장교 6명, 군의관 19명, 치과 군의관 2명, 의무부대 보조원 103명과 함께 베트남 국민들의 질병과 전상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1964년 9월 11일 고국을 떠나 만 13개월 동안 친형제를 돌보듯 정성어린 간호를 하여줌으로써 다소나마 그들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 덕분이라 믿는다 [...] 우리들의 근무지인 붕파우에 도착한 것은 9월 25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월남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며 피서기엔 피서지로도 손꼽힌다고 합니다 [...] 우리 이동외과 병원은 Vungtau Army Hospital 내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300침상을 가진 Convalescence Hospital의 본부 건물을 차지하게 된 셈이지요. 10월 11일은 처음 월남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은 환자 13명을 받기까지 건물 청소만 하기에다 십여일이 소요될 만큼 낡고 흐트러진 주위 환경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수술실, 중앙부, 소독실까지도 따로 없는 미비한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의 바쁜 업무는 시작되었고,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수용능력 600침상을 넘을 만큼 환자 수가 늘어갔으며, 붕파우 시내에서는 “파이한”(한국)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알 만큼 낮익어 갔습니다. 물론 의술이 뛰어남도 인정 받았기 때문이겠지만 한국 남성들의 늠름하고 준수한 모습이 더 한층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⁴¹⁾

40) 오제연 (2020), 「한국군과 베트남전쟁」, 『구술로 본 한국현대사와 군』, 선인, p. 36.

41) 손영숙 (1998), 「제1이동외과병원의 손영숙 대위 체험기」, 육군본부, 『간호병과 50년

손영숙의 글을 보면 전쟁터의 느낌보다는 ‘해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처음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제101 이동외과병원은 1964년 10월 의료를 시작하였다. 제101 외과이동병원이 있었던 봉타우는 전쟁지역의 안전도와 관련해서 가장 안전한 A지구로 구분되는 지역이라고 알려졌다.⁴²⁾ 이곳 간호장교들은 초기에는 전장에 온 것에 대한 실감이 크지 않았다.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은 <그림 1>에서 보이듯이 베트남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다. 이중 간호장교들은 봉타우 제1 이동외과병원, 나짱 제102 후송병원, 뚜이호아 제209 이동외과병원, 퀴논 제106 후송병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그림 1> 한국군 참전 지역과 간호장교 소속 병원 소재지

참고: 한정진 (2016), 『여성간호장교의 베트남전쟁 참전 체험』, 이대 박사학위논문, p. 11.

사』, pp. 150~152.

42) 「월남에 태극기 우리 이동외과병원」, 『동아일보』, 1964. 9. 25.

초기의 전쟁의 평온함은 1964년 12월 빈지아(Binh Gia)지역의 전투에서 남베트남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사라졌다. 이 전투로 인해 매일 40~ 50명의 전상자가 후송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처치와 수술 때문에 간호장교들은 잠잘 틈도 없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1965년 5월 6명의 간호장교가 추가로 도착하면서였다.

1965년 10월 22일 33명의 간호장교는 맹호 전투사단을 지원하기 위한 6후송 병원의 일원으로 7일간의 배 멀미를 견디고 월남의 퀴논에 도착하였다 [...] 도착하자마자 천막으로 병실을 마련하고 응급실, 수술실, 중앙부 등을 세워 병원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마지막으로 내가 숙소를 마련하였다 [...] 대량 전상환자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월남인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잔치, 나환자촌 방문, 학교 방문, 대민진료를 실시하여 ‘파이한’, ‘타이거’ 최고라는 찬사를 듣게 되었다. 베트남 중 한사람은 우리들로부터 수술과 간호를 받은 은공에 보답, 본인이 희망하여 중환자실에서 위생병 보조작업을 맡아 헌신하였고, 그의 딸은 간호 숙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드디어 맹호 1, 2호 작전이 시작되었다. 전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수술, 병실 간호 및 치료 등이 끝없이 계속되어 저멀리 동터 오르는 것을 저녁 노을로 착각할 정도로 정신없이 생활하였다 [...] 월남에서의 간호활동은 한국군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긍지를 갖게 하면서 아울러 간호장교로서의 보람을 갖게 된 소중한 경험이다.⁴³⁾

베트남전쟁 참전 초기 간호장교들은 최초로 해외에 파병된 한국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인술원정(仁術遠征), 대민진료의 성과 등으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⁴⁴⁾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 될수록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은 주변의 반전(反戰)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43) 김경숙 (1998), 「제6후송병원의 김경숙 대위 체험기」, 『간호병과 50년사』, pp. 156~157.

44) 「인술 원정(仁術遠征)」, 『동아일보』, 1964. 9. 25.; 「태극기 명예걸고 분투」, 『동아일보』, 1964. 11. 17.; 「비둘기 부대 주둔 한돌: 월남에 비친 코리아 코리언」, 『조선일보』, 1966. 3. 15.

근자에 사이공에서 들어온 보도에 의하면 월남 사람들의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극히 비우호적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 14일 월남 국경일에 벌어진 경축 축구대회에 나타난 월남 관중들의 반한감정은 너무도 상상밖의 일로 참으로 우울하고 불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만8천의 전투병력을 보내고 1만2천의 기술자를 보내어 월남의 對共전쟁을 돕고 있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⁴⁵⁾

이외에도 베트남전쟁에 대한 전세계적 반전 분위기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⁴⁶⁾ 베트남전쟁 반전 시위는 1964년 미국의 대학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빠르게 확산되어 1967년 반전운동연합회가 생겼다. 1969년에는 ‘베트남 반전의 날’을 정하여 대규모 베트남반전통일운동을 전개하여 전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전쟁의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펼쳐지고, 세계적인 베트남전쟁 반전 운동은 앞에서도 언급한 1965년 8월의 전남대학생들의 시위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제6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신민당 윤보선 대통령후보자 찬조 연설 중 장준하는 “박정희씨는 국민을 물건으로 취급, 우리나라 청년을 월남에 팔아 먹었고...”라며 공격하기도 하였다.⁴⁷⁾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베트남전쟁을 비난하는 등 반전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당시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은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채명신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며 “군이 사기를 얻어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 베트남전쟁처럼 복잡한 싸움은 일찍이 보기 드물었습니다. 파월 전야의 우리 국내여론은 더할 수 없이 어지러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

45) 「한월감정」, 『동아일보』, 1967. 12. 4.

46) 「황철수설」, 『동아일보』, 1967. 12. 16.; 「미국 대학신문 편집장들이 말하는 68년의 대학 무드」, 『조선일보』, 1968. 7. 28.

47) 「서민호, 장준하, 오재영씨 구속」, 『동아일보』, 1967. 5. 8.

들이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국군을 아끼고 우리 장병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안타까운 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청부(淸負)전쟁”에 나서는 총알받이“라고까지 비난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전투를 하려면 나라의 총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국민이 하나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군을 출동하는데 무리가 있고 군이 일심동체가 되어 단결하지 못하면 싸움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⁴⁸⁾

주월한국군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채명신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민족총화(民族總和)를 촉진하는 국가의식의 진작으로 국군이 훌륭한 전과를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가단결을 촉구해야 할 사명과 우방군과 협력하여 공산 침략군을 섬멸해야 하는 군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사명이 있다”며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참전 명분을 강조하며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고자 하였다.⁴⁹⁾ 그러나 ‘흙탕물 속의 전쟁’, ‘명분없는 전쟁’, ‘청부전쟁(淸負戰爭)’이라 불리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은 국내에도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⁵⁰⁾ 이와 같은 반전의 분위기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간호장교들 중 일부는 참전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기도 하였다.⁵¹⁾

1973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전쟁은 종결되었다. 미군은 철수했다. 남베트남 대통령은 “미국에 배신당했다”는 연설을 하고 사임하였고, 열흘 뒤에 남베트남 정부는 막을 내렸다. 한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1973년 3월이었다. 베트남전쟁 파병 10년 동안 총 32만 여명의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베트남전쟁을 체험하였다. 군인들뿐 아니라 기술자들을 포함한 민간인들도 마찬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였다. 1992년 베트남과 수교가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인들 사이에서 베트남

48) 채명신, 「월남전선서 돌아와서」 상, 『동아일보』, 1969. 5. 22.

49) 채명신, 「월남전선서 돌아와서」 상, 『동아일보』, 1969. 5. 22.; 채명신, 「월남전선서 돌아와서」중, 『동아일보』, 1969. 5. 23.

50) 「소설가 이상문씨 “생생한 체험 희생자 원혼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매일경제』, 1987. 5. 20.

51) 구술자 2, 3의 구술.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기도 하였다.⁵²⁾

이후 군인들은 베트남전쟁 참전을 ‘경제적 이익’을 얻은, 한국경제 성장과 연결시키거나, 애국주의와 연결해 이야기하였다.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한국은 당시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다라는 ‘논리’는 모든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 및 간호장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이 도로가 베트남에서 피땀을 흘린 장병들이 송금한 돈, 베트남 파병 대가로 얻어온 차관으로 건설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자신들의 베트남 참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고속도로 놓고 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너무 그때는 못 살았던 거예요. 하여튼 이때 엄청나게 그 베트남 전이 국가에 기여했고, 개인에게도 굉장히 기여했고 [...] [구술자 4의 구술 중]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고속도로를 깔은 것이, 뭐 그런 이야기도 또 저의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돈을. [구술자 8의 구술 중]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성과, 경제적 기반을 베트남전쟁 특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참전으로 “현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런 조국을 볼 때 저절로 자신들은 애국심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인물로 그리고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한 경험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쟁터에 있다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돈독해지더라고요. [구술자 7의 구술 중]

52) 한홍구는 베트남전쟁은 한국에서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한홍구는 베트남전쟁은 한국이 깊이 개입한 전쟁이지만 전국민의 대다수가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고, 또 한국이 지원한 남베트남 정권이 패망하였다는 점 등이 베트남전쟁을 잊혀지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한홍구 (2003), p. 287.

근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번영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국가에 참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술자 9의 구술 중]

월남전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대통령의 정책이 참 잘했다. 월남을 통해서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런데 나가서 또 그런 상황도 보고 겪으면서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얻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많이 누리고 있고, 월남전을 통해서 저희 수당도 줘. 하여간 우리한테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에게 희생당하신 분들은 정말 안됐고, 그분들의 그 터전 위에 이 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됐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나라가 많은 것을 얻기도 얻었다. [구술자 4의 구술 중]

이와 같이 오늘날 간호장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가정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의료부대 등 비전투부대 파견으로 시작되었으나,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였다. 간호장교들이 남긴 기록과 구술 자료를 통해 당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실제로 전쟁에 참전한 군인, 일반인들의 인식 간의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전쟁이 진행될 당시보다 전쟁이 끝난 이후의 인식 차이는 더욱 컸다. 전쟁이 진행되는 당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은 참전을 스스로 밝히

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당대 한국에서는 베트남전쟁에 참전 및 개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공식화되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세계적 반전 분위기는 참전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전 간호장교들은 베트남전쟁 제대 직후에는 참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목소리는 ‘국가주의’적이며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베트남전쟁 ‘이후’에 이들이 보여준 인식은 추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전쟁 참전 동기 및 참전 당시를 회상하는 구술에서는 국가 및 한국 사회와 관련한 인식보다는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끝난 60여년이 지난 현재를 기점으로 참전 당시를 회상하거나 현재 자신의 활동을 구술할 때는 자신의 행동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국가의 기틀이 단단해진 것으로 자신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간호장교들의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에 대한 구술에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족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이 강하게 드러난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의 부정적 평가 등에 대해 간호장교들은 언급하여도 짧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피치 못해 발생한 일로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부록 표〉 구술자 10인의 베트남전쟁 참전 시기 및 배치 지역

구술자	출생 년도 (나이)	참전 시기	참전 방식	참전 기간	배치 지역	주요 활동	제대 시기
구술자 1	1945 (23세)	1968	명령	1년	퀴논 106 후송병원	수술실, 일반병실	1970
구술자 2	1945 (24세)	1969	명령	1년	투이호아 이동외과병원	일반병실	1973
구술자 3	1940 (28세)	1968	지원	1년	퀴논 106 후송병원	마취간호	1970
구술자 4	1949 (22세)	1971	지원	1년 4개월	퀴논 106 후송병원	일반병실	1990
구술자 5	1946 (23세)	1969	명령	1년	붕타우 이동외과병원	일반병실	1971
구술자 6	1948 (23세)	1971	지원	1년	퀴논 106 후송병원	중환자실	1975
구술자 7	1939 (32세)	1971	명령	1년	붕타우 이동외과병원	간호부장 간호총괄	1983
구술자 8	1945 (24세)	1969	명령	1년3개 월	퀴논 106 후송병원	간호행정	1971
구술자 9	1946 (23세)	1969	명령	2년 (1년연 장)	나짱 102 후송병원	일반병실 대민진료	1972
구술자 10	1946 (23세)	1969	명령	1년6개 월	퀴논 106 후송병원	일반병실 대민진료	1973

참고문헌

- 김귀옥 (2008), 「한국 구술사 연구 현황, 쟁점과 과제」,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pp. 21~60.
- 김수자 (2024), 「베트남전쟁 참전 간호장교의 베트남전에 대한 인식과 ‘기억」, 『승실사학』, 52집, pp. 363~383.
- 김수향 (2020), 「한국군 구술을 통해 본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활동」, 『구술로 본 한국현대사와 군』, 선인, pp. 231~257.
- 민경자 (2008), 「여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제 68호, pp. 325~366.
- 류기현 (2020), 「주월한국군의 대민관계-참전 군인들의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구술로 본 한국현대사와 군』, 선인, pp. 275~306.
- 박정희 (1969), 『박정희 대통령 선집』, 4.
- 박태균 (2006),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과정-미국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74, pp. 144~189.
- 육군본부 (1998), 『간호병과 50년사』
- _____ (2009), 『대한민국간호병과 60년사: 1948-2008』
- 윤충로 (2008),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pp. 283~312.
- 오제연 (2020), 「한국군과 베트남전쟁」, 『구술로 본 한국현대사와 군』, 선인, pp. 33~75.
- _____ (2023), 「베트남전쟁 파병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역사비평』, 142, pp. 100~134.
- 이복남 (2020), 『아이고매 쏘지마요 우리 남편이라우: 여순 반란 사건에 종군한 어느 간호장교의 수기』, 신아출판사.
- 지연옥 (2005),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군 간호장교」, 『군진간호연구』, pp. 39~59.
- 채명신 (2002), 「베트남전쟁의 특성과 연합작전」,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1~102.
- 최용호 (2004),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한정진 (2016), 『여성 간호장교의 베트남전쟁 참전 체험』, 이대 박사학위논문, p. 1~179.
- 한홍구 (2003),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의 길」,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pp. 287~310.
- 『간호사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2024년 8월 20일
접속).

전쟁기념사업회, (<https://archives.warmemo.or.kr/> 2024년 8월 20일 접속).

Abstract

Memories of the Vietnam War Experience and Its 'Meaning' – Focusing on the Oral Life History of a Nurse Officer Who Served in the War

Kim, Soo-Ja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Korea intervened in the Vietnam War by sending non-combat troops in 1964. By the end of the war in 1973, a total of 320,000 soldiers had experienced the Vietnam War, of which 559 were nursing officers. The Vietnam War was initially viewed as the 'first overseas deployment' and 'aid to prevent communism in Vietnam.' However, negative connotations such as 'contracted war,' 'war in the mud,' and 'war without a justification' gradually spread. In this atmosphere, the nursing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war did not actively express their experiences after returning home. However, 'now,' 60 years later, they understand their role in the Vietnam War in relation to 'economic development.' They recognize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highway construction, is closely linked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Keywords: Vietnam War, Nursing Officer, Oral, Memory, Experience, Patriotism, Meaning

논문 투고일: 2024년 9월 14일
심사 완료일: 2024년 10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0월 11일